https://doi.org/10.7743/kisee.2017.16.2.034

우리나라 시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 연구

An analytic Study on long-term increasing and decreasing Typ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urban Area in Korea

윤용기*
Yoon, Yong-G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determining when a school established long term school plans accepted by analyzing the trend of increase or decrea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0 years to target of following nine cities, 552 elementary schools in Korea - 4 metropolitan cities(Ilsan, Bundang, Jungdong, Pyungchon, Sanbon, Dongtan and Kwangkyo), 4 central regional cities (Chunan, Asan, Seosan and Nonsan), 3 south-eastern regional cities(Pohang, Woolsan, Jinju, Changwon and Kyungsan) and 4south-western regional cities(Kwangju, Jeonju, Suncheon and Kunsan) for this purpos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ommon type was type 5, accounting for 56.8% (658) of the total, followed by type 11 (12.8%), type 13 (7.9%), type 15 (5.6%). Of the total 15 types, type 1, type 3, type 7 and type 14 accounted for less than 1% of the total. Second, the results of the Conflict Model Ⅰ and Conflict Model Ⅱ showed that Type1 and Type7 were not needed to be adopted.

키워드 :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 유형, 학생배치계획, 수도권 도시(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동탄, 광교), 중부권 도시(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영남권 도시(포항시, 울산시, 진주시, 창원시, 경산시), 호남권 도시(광주시, 전주시, 순천시, 군산시)

Keywords : Elementary School, increasing and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Type, Student acceptance plan, Metropolitan cities(Ilsan, Bundang, Jungdong, Pyungchon, Sanbon, Dongtan and Kwangkyo), central regional cities (Chunan, Asan, Seosan and Nonsan), 3 south-eastern regional cities(Pohang, Woolsan, Jinju, Changwon and Kyungsan), south-western regional cities(Kwangju, Jeonju, Suncheon and Kunsan)

Ⅰ. 서론

Ⅰ-1. 연구 목적

기존의 학생배치계획 업무는 단지 학교신설에 초점을 두어 단기적(5년간) 학생수 추정방식에 의해 주로 이루지고 있으나, 이의 신뢰도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 학생배치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본연구자는 전국 8개 도시 607개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화추세 분석 선행연구 결과[1]장기 학생 증감 추세 15개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전국적인 대표성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21개시 552개교를 추가하여, 총 29개시 1,159개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학생배치계획은 학교신설 뿐만 아니라 장기적 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교간 통합, 이전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ygyun10@knue.ac.kr)

1) 윤용기, 우리나라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 2016.12.

재배치, 폐교 등의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학생수 용배치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30년간의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연구를 통하여 향후 각 학교별 학생수 감소추세를 예측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I-2. 연구범위 및 내용

다음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단계로 수도권 7개 도시(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동탄, 광교), 중부권 4개 도시(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영남권 5개 도시(포항시, 울산시, 진주시, 창원시, 경산시), 호남권 4개 도시(광주시, 전주시, 창원시, 경산시) 총 552개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의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유형을 조사 분석한다.

2단계로는 선행연구 대상인 전국 8개 도시(수도권4, 중부권2, 남부권3) 607개교와 합하여 총 29개시 1159개 초등학교로 모집단수를 늘려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종합하여 재분석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의 연구체계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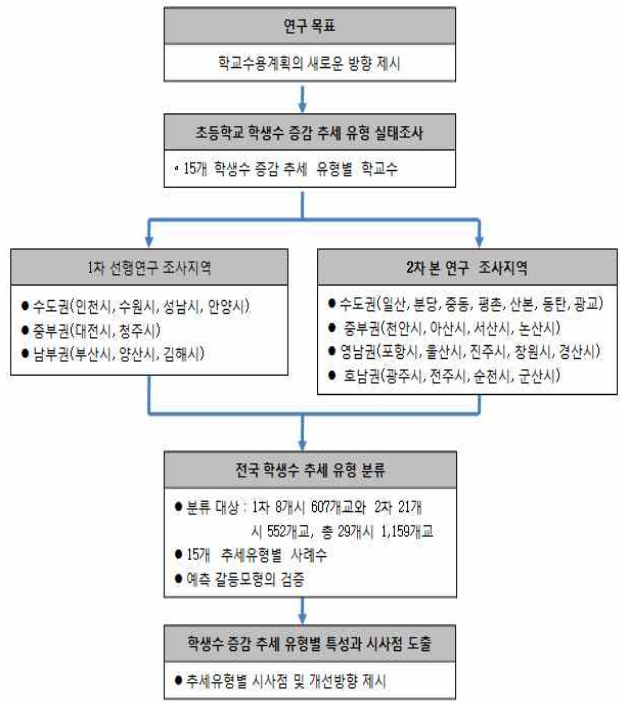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체계도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학교별 최근 30년간의 학생수 증감추세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가 조사 분석한다.

둘째,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갈등모형Ⅰ과 갈등모형Ⅱ에 대해 재검증을 한다.

II. 학생수 증감 추세 예측 유형의 개발

II-1. 학생수 변화 추세 유형 분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추세를 다음 <그림2>과 같이 15개 유형[2]으로 세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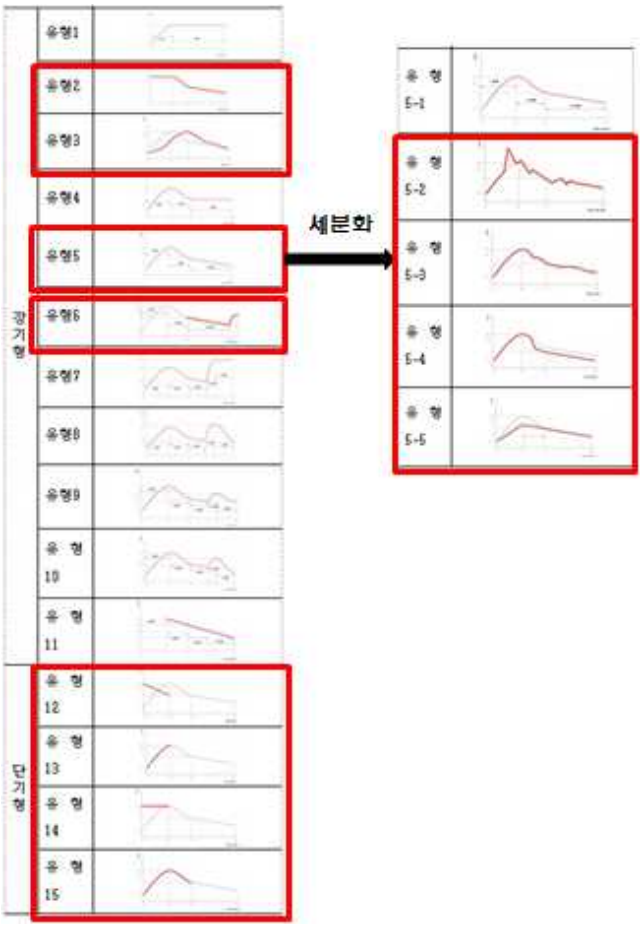


그림 2.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윤용기, 2016.12)

2)윤용기, 우리나라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28~30쪽 요약 재인용,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 2016.12.

유형1은 개교후 시간이 경과해도 통학구역내 학생수 변동없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측유형이다. 유형2는 개교초기 6년~8년간 학생수가 변동없이 일정하다 유형5와 유사한 하락 패턴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유형이다. 유형3은 프로토타입인 유형5와 유사하나 학생수 증가가 개교 초기에 정점을 이루지 않고 늦게 최고점을 이루다가 감소하는 경우의 유형으로, 학교신설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유형이다.

유형4는 유형5와 유사하나 학생수가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추세유형이다.

유형5-1은 학교신설후 학생수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전형적인 추세예측유형이다.

유형5-2는 유형5-1의 유사형이나 학생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 유형이다. 유형5-3은 유형5-1의 추세를 유지하나 학생수 변동이 파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예측한 유형이다. 유형5-4도 유형5-1과 유사한 유형으로 학생수 증가 정점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의 예측유형이다.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유형5-5는 원형5-1과 유사하나 학생수 감소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는 유형이다.

유형6는 학생수가 매우 적어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학생수 증가 요인이 발생한 유형이다.

유형7은 원도심 도시재개발지역이나 시가화 확장지역내 고밀 개발에 따른 학생수 폭증 유지로 기존 학교시설로는 학생 증가 수요를 해결할 수 없으니 추가적인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예측유형이다. 유형8은 유형7과 유사하나 주변개발로 학생수 증가후 재차 감소로 들어서는 경우의 유형이다. 유형9는 유형8가 유사하나 학생수 증가가 제한적이고 재하락후 일정한 학생수를 유지할 것이라는 경우를 가정한 추세유형이다. 유형10은 유형8, 유형9와 달리 학생수가 일시 증가하지만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경우의 유형이다. 유형11은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이다.

유형12는 유형11과 유사하나 신설초기부터 단기간 학생수가 감소하는 유형이다. 유형13은 예측유형5의 초기 상승 추세를 보이는 유형으로 현재 신설수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형14는 단기간이지만 신설초기 일정기간 학생수 변동이 없는 유형이다. 유형15는 유형5와 같이 중기적으로 상승후 하락 초기단계의 추세를 보이는 유형이다.

III. 초등학생수 변동추세유형 조사 분석

III-1. 조사 대상 지역 개요

1) 개요

조사대상은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1개 도시(수도권 7, 중부권4, 영남권5, 호남권4), 55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지역 및 초등학교수 (2015.12 현재)

구분	시별	인구수	학교수	조사지역
수도권 (11)	일산	276,000	25	1차 신도시 (계획인구)
	분당	390,320	28	
	중동	165,740	14	
	평촌	168,188	13	
	산본	167,896	14	
	동탄	120,000	12	서동탄
	광교	11,283	7	신도시
중부권 (6)	천안시	609,168	27	시지역
	아산시	301,822	13	시지역
	서산시	169,982	6	시지역
	논산시	123,623	5	시지역
영남권 (8)	포항시	519,584	35	시지역
	울산시	1,173,534	37	시지역
	진주시	344,426	20	시지역
	창원시	1,070,064	36	시지역(의창구, 성산구)
	경산시	256,888	13	시지역
호남권 (4)	광주시	1,472,317	154	전지역
	전주시	652,811	38	덕진구,완산구
	순천시	279,539	25	시지역
	군산시	278,399	30	시지역
합 계			552	

III-2. 시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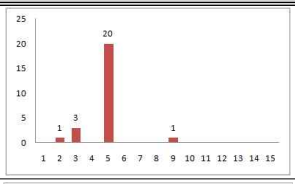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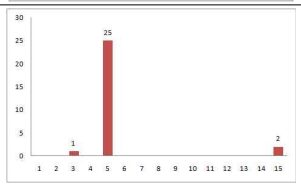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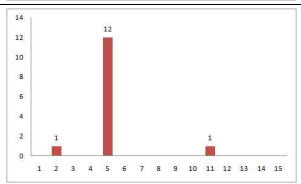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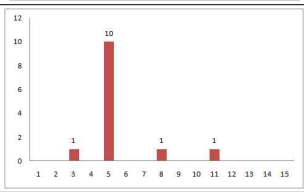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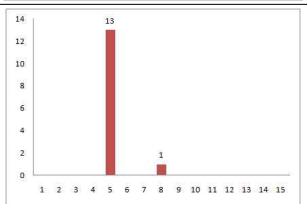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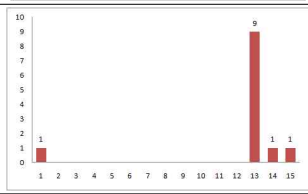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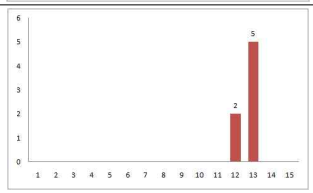
다음 <표2>에서 <표5>는 시별 학생수 증감추세를 유형별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따

라서 도시별 15개 유형별 빈도수는 빛의 스펙트럼과 같이 특정 시의 학교 신설, 학생수 급감 등 전반적인 고유한 학생배치계획상 특성을 나타낸다.

1) 수도권 도시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유형5가 전체의 25개교중 8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유형3의 사례수가 3(12%)으로 여타 시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2. 수도권 도시별 학생 증감추세 유형별 빈도차

시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빈도 비교	비고
일산시		T5>T3>T2, T9	
분당		T5>T15>T3	
중동		T5>T2, T11	
평촌		T5>T3, T8, T11	
산본		T5>T8	
동탄		T13>T1, T14, T15	
광교		T13>T12	

분당신도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유형5가 전체 28개교의 89.3%인 25개교에 해당될 만큼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형5의 학생수 하락초기형인 유형15에 해당하는 학교가 2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신도시도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유형5에 전체 14개교의 85.7%인 12개교로 가장 많다. 특이한 것은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유형11이 있는 것은 학교신설 수요가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이다.

평촌신도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유형5가 전체 13개교중 76.9%인 10개교로 가장 많다. 유형3과 유형11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는 신설시기와 신설 수요가 과연 적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산본신도시는 전체 14개교중 92.9%인 13개교가 유형5에 속한다. 특이한 것은 유형8이 하나 있는데, 이는 유형5의 상승후하락 추세를 따라 가다가 내부적인 학생수증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재상승후하락하는 유형8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탄신도시(서동탄)는 학교가 신설된지 모두 10년 이하여서 장기적인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12개교의 75%인 9개교가 상승초기형인 유형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형1과 유형14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는 단기적이지만 학생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교신도시 또한 동탄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학교신설이 얼마되지 않아 장기적 추세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특이한 것은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감소하는 유형12에 해당되는 학교가 2개교 있다는 것으로 과연 학교신설의 시기나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므로 면밀한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

2) 중부권 도시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유형5가 가장 많지만, 유형5는 전체 27개교중 55.6%인 15개교로 다른 시보다 낮게 나타내고 있고, 유형5의 초기형인 유형15의 사례수가 22%인 6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가화 확장지역이나 원도심지역 도시재개발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학교신설 주장의 논거가 되는 보기드믄 유형7이 2개교 존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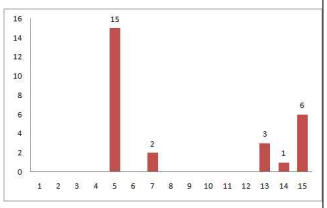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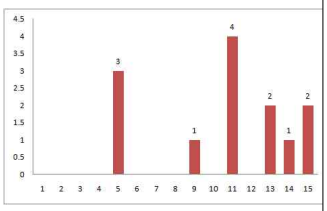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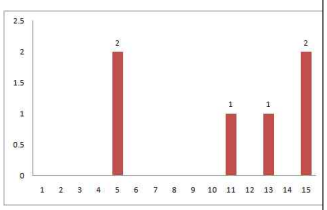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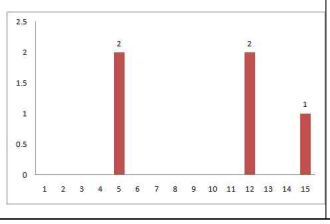
아산시는 유형5가 전체13개교중 38.5%인 3개교로

다른 시보다 매우 적고, 유형15가 전체의 15.4%인 2개교로 천안시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감소하는 유형11의 학교가 전체의 30.8%인 4개교로 신설 수요와 신설시기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서산시는 학교신설이 얼마 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 유형5가 전체의 33.3%인 2개교로 다른 시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이지만 개교초기부터 학생수가 감소하는 유형11의 학교가 1개교로 이에 대한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도 전체 5개교중 2개교가 유형12에 해당되어 과연 학교 신설이나 개교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표 3. 권역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별 빈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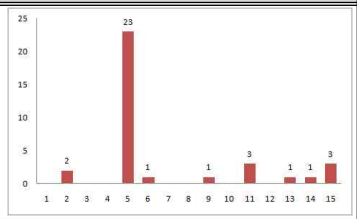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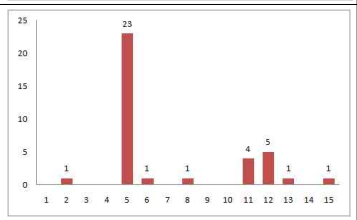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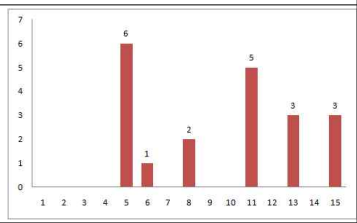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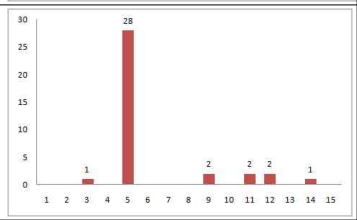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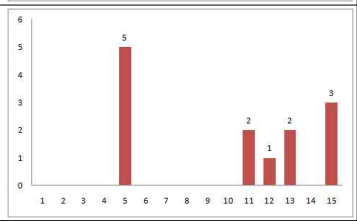
시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빈도 비교	비고
천안시		T5>T15>T13>T7>T14	
아산시		T5>T3>T2,T15>T9,T14	
서산시		T2, T15>T11, T13	
논산시		T5, T12>T15	

3) 영남권 도시

다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유형5가 전체35개교중 65.7%인 23개교로 가장 많다. 그러나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유형11의 학교수가 3개교로 이에 대한 재구조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울산시도 전체 37개교중 62.2%인 23개교가 유형5를 차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장기 감소하는 유형11과 단기감소 유형12가 전체의 24.3%인 9개교로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의 재구조화가 종합적으로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권역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별 빈도 차이

시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빈도 비교	비고
포항시		T5>T11, T15>T2> T6, T8,T	
울산시		T5>T12> T11>T2, T6, T8, T13, T15	
진주시		T5>T11> T13,T15> T8>T6	
창원시		T5>T9,T11,T12>T3, T14	
경산시		T5>T15> T11>T13 >T12	

진주시도 유형5가 가장 많으나 전체 20개교중 30%인 6개교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장기 지속하락형인 유형11의 학교수가 전체의 25%인 5개교로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배치계획상 재구조화 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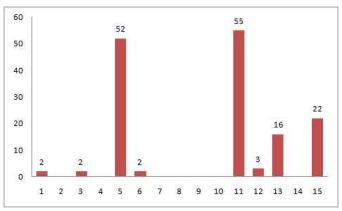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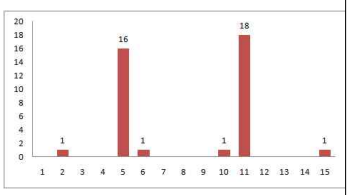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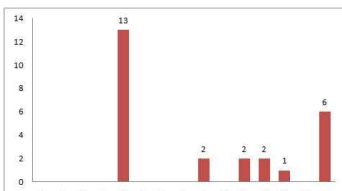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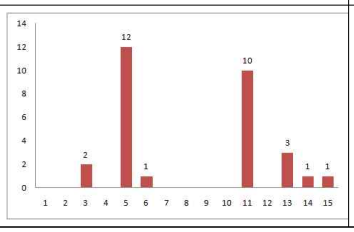
창원시는 유형5가 전체 38개교중 77.8%인 28개교로 가장 많다. 그러나 장기하락형이 2개교, 단기하락형이 2개교로 종합적인 재구조화나 신설시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는 전체 13개교중 38.5%인 5개교가 유형5로 전국평균보다 매우 낮다. 그러나 유형11의 학교가 2개교, 단기하락형 12의 학교가 1개교로 종합적인 재구조화나 신설시기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호남권 도시

다음 <표5>에 보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유형5가 전체 154개교중 52개교로 전국평균보다 매우 낮은 3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장기 지속하락형이 55개교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고 단기하락형도 2개교로 시급히 종합적인 학생배치계획상 재구조화 검토가 요구된다.

표 5. 권역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별 빈도 차이

시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빈도 비교	비고
광주시		T11>T5>T15>T13>T12>T1, T3, T6	
전주시		T11>T5>T2, T6, T10, T15	
순천시		T5>T15>T9, T11, T12>T13	
군산시		T5>T11>T13>T3>T6, T14, T15	

전주시는 유형5가 전체 38개교중 16개교인 42.1%로 전국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장기 지속하락형인 유형11의 학교가 전체의 47.4%로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유형5가 전체 26개교중 13개교인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하락형 2개교, 단기하락형 2개교로 재구조화와 학교신설시기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유형5가 전체 30개교중 12개교인 40%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또한 장기하락형인 유형11이 전체의 33.3%인 10개교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학생배치계획상 검토가 요구된다.

III-3. 권역별 비교결과

다음 <그림3>는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 15개 유형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한 권역별 사례수로 권역별 차이없이 유형5가 가장 많았고, 특이한 것은 호남권 지역에서 유형11이 매우 높은 점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유형5>유형13>유형3>유형15 순으로 많고, 중부권은 유형5>유형15>유형13>유형11 순으로 많다. 영남권은 유형5>유형11>유형15>유형12>유형13 순으로 많고, 호남권은 유형5>유형11>유형15>유형13 순으로 많았다.

다음 <그림4>는 유형5를 5-1형에서 5-5형까지 5개로 세분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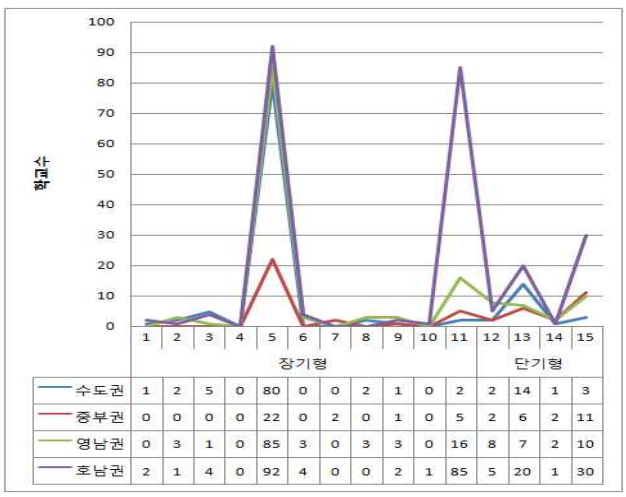


그림 3. 권역별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별 학교수

장기형이 428개교이고 단기형이 124개교로 나타났다. 장기형 15개 유형중에 가장 많은 것은 유형 5-1로 379개교(71.5%)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형10이 58개교(10.9%), 유형 13이 45개교

(7.4%), 유형11은 40개교(7.5%)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형 4개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은 단기상승형으로 45개교(57.7%), 단기하락형 16개교(21%) 순으로 많았다.

도시별로 보면 일산, 분당, 중동, 산본, 천안, 광주, 순천, 군산시 등 8개 도시는 유형5-1이 가장 많고, 평촌, 포항시, 울산시, 창원시, 경산시, 전주시 등 6개 도시는 유형5-2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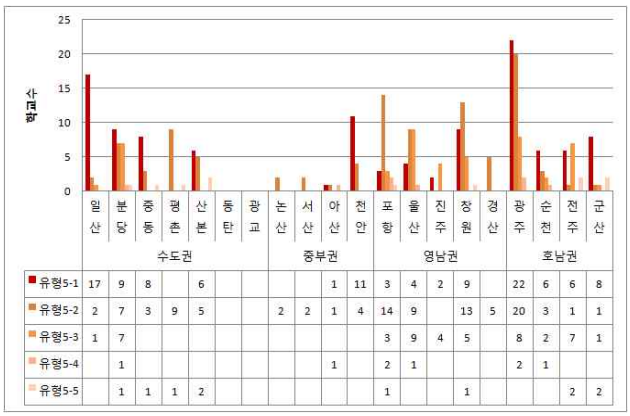


그림 4. 권역별 시별 학생수 증감추세 원형5의 사례수

다음 <그림 5>은 21개시 552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프로토 타입인 유형5가 전체의 50.5%인 279개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장기하락형인 유형11이 전체의 19.6%인 108개교로 많다. 이는 학교신설보다는 이전, 통폐합 등 중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이 시급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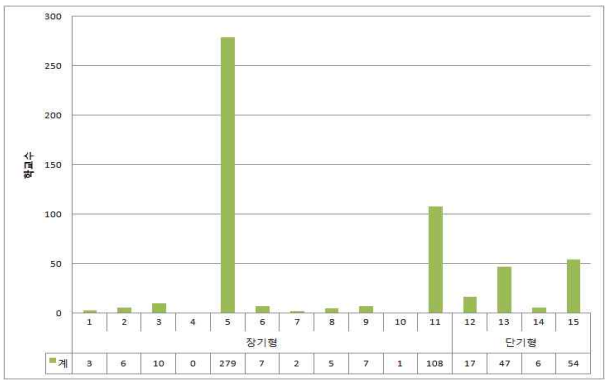


그림 5.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별 학교수

IV.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별 사례 조사결과

IV-1.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별 특성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 6. 학생수 증감 추세유형별 사례수 종합

유형 구분		추세선	조사대상			
			선행 연구*	본연구	학교수(%)	
장기형	유형1		1	3	4 (0.3)	
	유형2		12	6	18 (1.6)	
	유형3		6	10	16 (1.4)	
	유형4		2	0	2 (0.2)	
	유형5	유형5-1	146	112	258 (22.3)	658 (56.8)
		유형5-2	46	101	147 (12.7)	
		유형5-3	108	47	155 (13.4)	
		유형5-4	23	8	31 (2.7)	
		유형5-5	56	11	67 (5.8)	
	유형6		13	7	20 (1.7)	
	유형7		0	2	2 (0.2)	
	유형8		19	5	24 (2.1)	
	유형9		1	7	8 (0.7)	
	유형10		58	1	59 (5.1)	
	유형11		40	108	148 (12.8)	
단기형	유형12		16	17	33 (2.8)	
	유형13		45	47	92 (7.9)	
	유형14		4	6	10 (0.9)	
	유형15		11	54	65 (5.6)	
합 계			607	552	1,159 (100.0)	

* 윤용기, 전게서, 32쪽에서 인용, 2016.12.

조사 분석의 모집단 수는 선행연구 (8개시, 607개교)[3]와 본 연구 대상 21개시 552개교를 합한 총 수도권 11개시, 중부권 6개시, 영남권 8개시, 호남권 4개시 총 29개 도시 1,159개 초등학교이다.

1) 유형별 사례수

다음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사례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학생수 증감추세의 원형인 유형5로 전체의 56.8%인 658개교이고, 그다음으로는 유형11이 148개교(12.8%), 유형13이 92개교(7.9%), 유형15가 65개교(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5개 유형중 유형1, 유형3, 유형7, 유형14는 각각 전체의 1%미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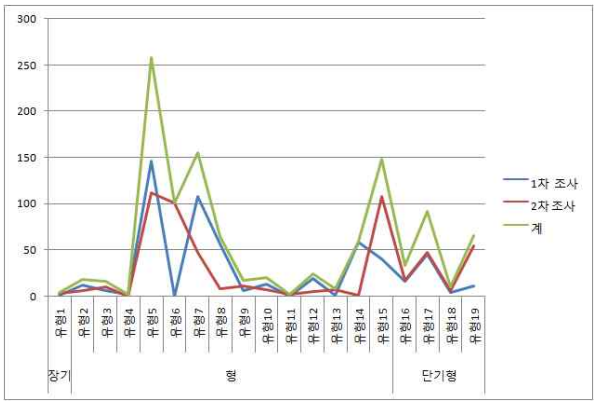


그림 6. 유형별 사례 학교수

2) 예측 갈등모형의 재검증

다음 <그림7>의 학생수 변화추세 예측 갈등모형 1[4]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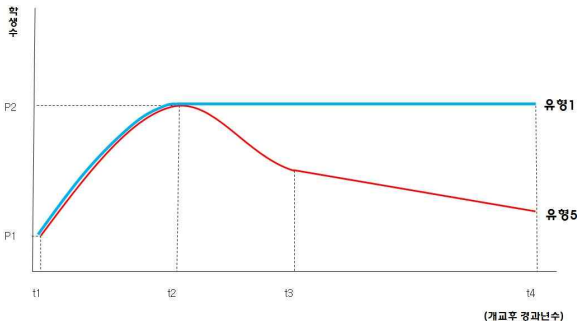


그림 7. 학생수 예측 갈등모형 I (윤용기, 2016.4)

장기 학생수 변화 추세가 유형5와 같이 급감할 것이라는 견해에 반해, 민원인들은 유형1과 같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의 충돌이다.

또한, 학생수 변화추세 예측 갈등모형Ⅱ[5]는 다음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 유형7과 같이 민원자가 학생수 폭증에 따른 추가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해, 유형10과 같이 학생수 증가는 일시적, 제한적이고 중장기적 감소추세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학교 신설보다 인근학교 분산 재배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의 첨예한 갈등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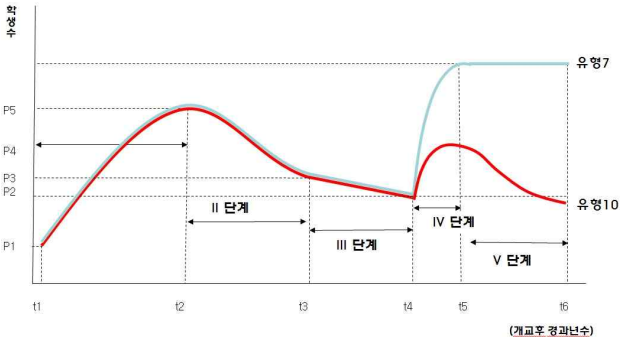


그림 8. 학생수 예측 갈등모형 II (윤용기, 2016.4)

이미 선행연구에서 검증해 보았으나, 전국적인 대표성을 같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 대상인 552개교를 포함한 전국의 총 1,159개 교 사례 분석 결과 다음 <그림9>의 유형5와 유형1사이의「갈등모형Ⅰ」의 사례수는 유형5가 658개교(56.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에 비해 유형1의 사례수는 4개교(0.3%)로 거의 무시될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증감 추세 유형1에 근거한 학교 신설요구는 대부분 성립되지 않음을 재입증할 수 있었다.

「갈등모형Ⅱ」또한 전체 1,159개교중 유형10의 사례수가 59개교(5.1%)로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유형7의 사례수는 단지 2개교(0.2%)로 「갈등이론Ⅱ」, 또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에서는 유형5가,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는 유형10이 학생수 증감 추세 예측의 가장 유효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3) 윤용기, 전게서, 32쪽에서 인용, 2016.12.

4) 윤용기, 중소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38쪽, 2016.4

5) 윤용기, 전게서, 38쪽,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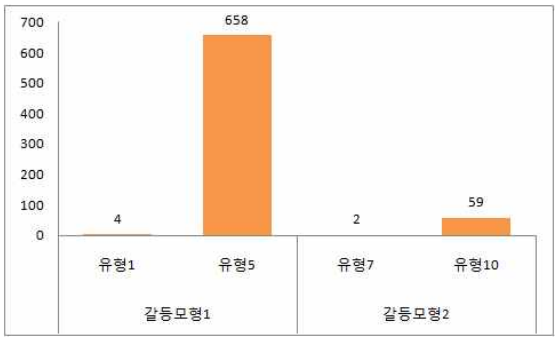


그림 9.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사례수 비교

IV-2. 소결

선행 1차 연구와 본 연구대상 지역 학교수를 종합한 수도권 11, 중부권6, 영남권8, 호남권4 도시로 총 29개 도시 1,15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사례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학생수 증감추세의 원형인 유형5로 전체의 56.8%인 658개교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유형11이 148개교(12.8%), 유형13이 92개교(7.9%), 유형15가 65개교(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5개 유형중 유형1, 유형3, 유형7, 유형14는 각각 전체의 1%미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둘째, 학생수 변화추세 예측 갈등모형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학생수 변화 추세가 유형5를 차지하기 때문에 추가 신설에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유형1과 같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증을 위한 전국의 총 1,159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결과는 이「갈등모형Ⅰ」은 유형5와 유형1의 사례수는 각각 658개교(56.8%)와 4개교(0.3%)로 유형5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형1의 사례수가 실제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1에 근거한 학교 신설요구는 대부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수 변화추세 예측 갈등모형Ⅱ는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 사례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159개교중 유형10의 사례수가 59개교(5.1%)로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유형7의 사례수는 단지 2개교(0.2%)로「갈등이론Ⅱ」, 또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에서는 유형5가,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는 유형10이 학생수 증감 추세 예측의 가장 유효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552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본연구의 1단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수 증감추세 15개 유형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권역별 구분없이 유형5가 가장 많았고, 특이한 것은 호남권 지역에서 유형11이 매우 높은 점이다.

둘째, 장기형이 428개교이고, 단기형이 124개교로 장기형 15개 유형중에 가장 많은 것은 유형5로 379개교(71.5%)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형10이 58개교(10.9%), 유형 13이 45개교(7.4%), 유형11은 40개교(7.5%)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형 4개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은 단기상승형으로 45개교(57.7%), 단기하락형 16개교(21%) 순으로 많았다.

셋째, 도시별로 보면 일산, 분당, 중동, 산본, 천안, 광주, 순천, 군산시 등 8개 도시는 유형5-1이 가장 많고, 평촌, 포항시, 울산시, 창원시, 경산시, 전주시 등 6개 도시는 유형5-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차 선행연구 대상 8개시 607개교와 본 연구 조사대상 21개시 552개교를 합한 총 29개 도시 1,159개 초등학교(수도권 11, 중부권6, 영남권8, 호남권 4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2단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학생수 증감추세의 원형인 유형5가 전체의 56.8%인 658개교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유형11이 148개교(12.8%), 유형13이 92개교(7.9%), 유형15가 65개교(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5개 유형중 유형1, 유형3, 유형7, 유형14는 각각 전체의 1%미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둘째, 유형5와 유형1사이의「갈등모형Ⅰ」의 사례수는 유형5가 658개교(56.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에 비해 유형1의 사례수는 4개교(0.3%)로 거의 무시될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증감 추세 유형1에 근거한 학교 신설요구는 대부분 성립되지 않음을 재입증할 수 있었다.

「갈등모형Ⅱ」또한 전체 1,159개교중 유형10의 사례수가 59개교(5.1%)로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유형7의 사례수는 단지 2개교(0.2%)로 「갈등이

론Ⅱ」, 또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에서는 유형5가,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는 유형10이 학생수 증감 추세 예측의 가장 유효한 모형임을 재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신설수요나 기설학교의 향후 학생수 변화추세가 유형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기적인 체계적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29개 시 지역 1,15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와 대구시, 강원도 지역이 빠져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별 체계적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단계로 552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생수 증감추세 15개 유형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권역별 구분없이 유형5가 가장 많았다.

둘째, 도시별로 보면 일산, 분당, 중동, 산본, 천안, 광주, 순천, 군산시 등 8개 도시는 유형5-1이 가장 많고, 평촌, 포항시, 울산시, 창원시, 경산시, 전주시 등 6개 도시는 유형5-2가 가장 많았다.

2단계로 1차 선행연구 대상 8개시 607개교와 본연구 조사대상 21개시 552개교를 합한 총 29개 도시 1,159개 초등학교(수도권 11, 중부권6, 영남권8, 호남권 4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학생수 증감추세의 원형인 유형5가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유형11이 12.8%, 유형13이 7.9%, 유형15가 5.6%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중 유형1, 유형3, 유형7, 유형14는 각각 전체의 1%미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둘째, 유형5와 유형1사이의「갈등모형Ⅰ」은 유형5가 56.8%로 압도적으로 유형1의 사례수 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학생증감 추세 유형1에 근거한 학교 신설요구는 대부분 성립되지 않음을 재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유형10의 사례비율이 5.1%로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유형7은 0.2%로 「갈등이론Ⅱ」, 또한 거의 무의미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도시에서는 유형5가,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는 유형10이 가장 유효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국 29개 시 지역 1,15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 체계적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와 대구시, 강원도 지역이 빠져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윤용기, 학교 입지 계획요소가 학생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17.4
2. 윤용기,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16.12
3. 윤용기, 대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16.8
4. 윤용기, 중소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16.4
5. 윤용기, 1기 신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15.12

(논문투고일 : 2017.07.27, 심사완료일 : 2017.08.17, 게재확정일 : 2017.08.25.)